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2 광주·전남의 맛과 멋

광주·전남 찾은 관광객에 물어보니
광주는 휴식 위해 방문
전남은 명승·풍경 감상
경비는 20여만원씩 써

어딜가나 '감동의 맛'... 문화유산의 보고

"광주·전남에 가면, 음식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느 식당이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맛갈스런 음식이 나온다."

한국대학축구연맹 변석화 회장이 지인들과 만나 음식 이야기를 할 때면, 곧잘 되뇌이는 말이다. 변 회장이 이처럼 호남 음식 매니아가 된 것은 지난 200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광주시는 대학축구연맹과 함께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유치했다. 변 회장은 이때 연맹 간부 10여명과 함께 한달여 동안 광주에 머물렀다. 광주에서는 처음 대회를 개최하는지라 속이론 음식이나 잡자리 걱정을 했는데, 어디가든 값싸고 맛있는 음식이 나와 감동했다고 한다. 변 회장은 이듬해인 2004년에도 광주에서 60여개팀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학축구연맹전을 개최했고, 2007년에는 강진에서도 같은 대회를 열어 호남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음식 맛있고, 볼 것 많은 고장에 대한 사랑이다.

흔히 광주·전남의 관광 여건을 말할 때, 변 회장이 그런 것처럼 다른 고장에 비해 맛과 멋이 월등하다고 얘기한다.

전남은 전체 면적의 61%가 표고 100m이하의 평지로 전국 최대의 농경지를 보유한다.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에 간석지가 넓게 분포해 연안어족, 해조류, 패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섬이 1천 969개로 전국 최대(62.1%)의 도서해양자원을 보유하고, 해안선 길이에 6천431km로 전국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 남도는 '바닷길이 만든 민족문화 박물관'으로 불린다. 서남해와 인접한 수많은 섬들을 연결하는 바닷길, 그리고 이와 연결되면서 내륙의 혈액이 되어주는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등 연안수로는 옛 시절 문화전파의 실크로트였고, 역사유적을 곳곳에 남겼다.

영산강유역의 선사·고대문화 코스, 강진 청자와 불교문화 코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장보고의 청해진, 삼별초의 진도, 이순신의 명량해협 등 해로와 전적지 탐사 코스, 섬 문화 답사 코스 등도 바닷길이 후손에게 남긴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더욱이 이들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은 나름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5·16이후 대부분의 유명문화 유적이 '정화'·'복원'의 대상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광주·전남의 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는 광주 불국사나 함천 해인사를 보다가 영광 불갑사와 해남 미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농투살이'나 '담사리' 등 민초들의 풋풋한 삶과 생활이 고스란히 숨쉬는 곳이라는 점도 전남이 지니는 관광자원의 하나다. 민속학자들이 지적하듯 '민속의 보고'인 것이다. 이런 문화관광자원은 고싸움, 들노래, 줄풍류, 우도농악 등으로 표출된다. 광주·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27개 시·군·구별로 111개의 축제를 열고 있는 것도 이런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맛과 멋의 고장이자 '민속의 보고'다. 지난해 10월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 제14회 남도음식잔치 행사 장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산물·어족·패류 풍부한 '음식 본고장'
고싸움·들노래 등 민초들의 삶 고스란히
무형문화재 전국 최다... 축제도 가장 많아

한국역사 발전과정에서 정신사적으로 광주·전남이 지니는 역사적 특징 또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이 크다. 고려의 삼별초를 비롯해 조선시대 기라성 같은 호남사립, 호남이아니면 이 나라도 없었을 것이

라던 왜란기의 호남의병, 다산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조선후기의 호남실학, 동학농민, 한말의병과 일제하 독립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상 큰 궤적들이 이 지역에서 배태됐다. 국립5·18묘지를 비롯한 5·18광주항쟁 유적지, 진도 등 삼별초와 여봉연합군 격전지, 왜란 전적지나 동학혁명 격전지 등을 활용한 역사현장 탐사 코스는 다른 지역이 흉내낼수 없는 광주·전남만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런 강점에도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76.8%가 서울을 찾았다. 다음으로 부산(18.0%), 인천(13.9%), 민속촌(12.7%), 제주도(12.4%)순이었다.

구례 지리산(음식), 순천(순천만,낙안읍성, 송광사), 화순(고인돌 공원), 장성 내장산 등이 지난 2007년에야 일본 관광객들의 패키지 여행 상품에 들어갔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숙박과 연결되지 못하는 단일지 여행이다. 호텔 객실이 부족함에도, 트윈베드를 갖추지 못해 외국인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수준있는 숙박시설 확충, 수도관에 비해 떨어지는 교통시설 보완, 푸지고 맛있는 음식을 친절하게 내다 놓는 정있는 손님접대.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에 꼭 달성해야 할 과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Category, National, Jeonnam, Difference. Rows include Jeonnam satisfaction,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 Dining, Souvenirs, and Information services.

광주에서는 휴식과 휴양, 전남에선 자연명승과 풍경을 감상한다. 지난해 관광객들이 광주·전남을 방문해서 주로 한 활동들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2007년 상반기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 관광객의 44.8%가 휴식·휴양을 주로 한 응답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69.3%가 자연명승과 풍경감상을 방문시 주 활동으로 꼽았다.

여행객들은 주로 주말을 택해 광주(69.8%), 전남(61.4%)을 찾았고, 1회 여행경비로 광주에서는 27만3천원, 전남에선 20만3천원을 썼다. 여행객들은 광주(68.6%), 전남(34.2%) 모두 2~3명의 일행과 함께 왔고, 숙박은 광주의 경우 친지 집(31.3%), 전남은 모텔·여관(27.0%)을 이용했다.

광주에는 주로 40대(27.3%)·남성(74.2%)·대졸(65.5%)·서비스직(46.5%)·월소득 400만원 이상(44.0%)가 다녀갔다. 전남에는 30대(26.6%)·남성(53.6%)·대졸(45.6%)·서비스직(21.1%)·월소득 400만원 이상(29.5%)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객들은 광주의 경우 숙박지 주변 관광정보 제공, 주차공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볼거리·관광내용 면에서 지역별 특색과 동작성 등을 강조하고, 음식점의 청결과 위생분야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광상품의 품질 제고, 화장실 개조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도 도출됐다.

여행 만족도는 광주의 경우 3.82점으로 전체 만족도보다 0.04점 높았고, 분야별로 식당·음식점, 숙박, 쇼핑, 교통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볼거리·관광내용, 관광정보·안내시설, 관광편의시설 분야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전남은 3.88점으로 전체 만족도보다 0.10점 높았다. 식당·음식, 볼거리·관광내용, 쇼핑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나, 숙박은 낮은 평점을 받았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이번 평가 등을 토대로 식당 등 전남 주요 관광업소에 이동 컨설팅 팀을 보내 취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onsumer Satisfaction 1st' featuring various household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washing machines.

Advertisement for 'Your 'S' Line is it healthy?' featuring a bed and promoting a mattress brand.